

스러져 가는 윤상원 열사 생가

넓고 밟길 드물어 흥물 전략

“보수후 5월정신 알리는 공간으로”

윤상원 열사는 1980년 광주민중항쟁 당시 도청에 꾸러진 항쟁지도부의 대변인으로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이 도청에 진입할 때 총에 맞아 사망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2년 그와 박기순 씨의 영혼결혼식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노래이기도 하다.

5·18 민중항쟁 33주년을 맞아 관리부실로 방치되고 있는 윤상원 열사의 생가를 개·보수한 뒤 5월 정신을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광주시 관산구에 따르면 광주시 관산구 신흥동(570-1번지)에 위치한 5·18 항쟁지도부 대변인인 윤상원 열사의 생가는 현재 마땅한 관리주체가 없고 노후화되면서 찾는 이가 없는 흥물로 전락하고 있다.

구청 측은 지난 11일 윤상원 열사의 생가를 방문, 1t 화물차 10대 분량으로 각종 쓰레기를 치우는 등 정비했다.

인근에 사는 선운 아파트협의회와 마을주민 등도 이날 자원봉사자로 참

여, 쓰레기 제거와 담장 보수작업 등을 했다.

하지만,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화돼 곳곳이 헐고 무너지는 등 생가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일각에선 5·18 당시 계엄군의 최후 통첩에 맞서 싸운 윤상원 열사의 정신을 기리는 차원에서 이곳을 5·18 열사 생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링 등 콘텐츠 확보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생가는 텅 빈 채 방치돼 있으며, 고인의 부모는 생가 옆에 지어진 1층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주민 김모(54씨)는 “80년 5월 정신을 통해 광주가 세계적인 민주화 성지로 거듭나고 있는데도 정작 5·18

운동의 주역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라며 “민주화를 위해 신군부에 맞섰던 영령들의 사적지에 대한 방치는 소중한 역사 자산을 우리 스스로 저버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관산구청장은 “고인의 생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뿐 아니라 하루빨리 시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며 “보다 많은 이들이 고인의 뜻을 기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상원 열사는 1980년 5월 27일 ‘지금은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승리하기 위해선 끝까지 도청을 사수해야 한다’는 말을 남긴 뒤 도청에 남아있다가 사망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여중생 꼬드겨 성관계, 강간 아니나 위자료 줘야”

광주지법, 40대 피고에 손해배상 판결

강제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해왔더라도 불법력이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것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40대 피고에게 성관계를 맺은 미성년자인 딸을 인계한 아버지가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광주지법 민사 2단독 박현 판사는 최근 A(17)양과 그 부모가 지난 2010년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A양을 성추행하고 성관계까지 맺은 최모(48·문구점 운영)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 최씨가 A양에게 4000만원, 부모에게 각각 400만원을 지급하

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A양을 친절하게 대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등 경계심을 풀게 하고 문구점에 있는 문구류 등을 뒤 훑음을 사면서 그녀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은 불법력이 성숙하지 못한 A양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성적 착취”라고 규정했다.

최씨는 지난 2010년 5~6월 자신이 운영하는 문구점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A양을 추행하거나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A양에게 돈을 건네기도 했다. 이후 최씨는 기소됐으나 1심에서는 A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2심에서는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강제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각각 무죄판결을 받았다.

/윤현석기자 chadoll@

니원침 (8814) 김동두



“임을 위한 행진곡이 뭐예요”

“임을 위한 행진곡”이요? 그게 뭔데요?”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의 한 복판에 있던 ‘5·18 민중항쟁 사적지’인 전남대 교정에서 만난 대학생들의 반문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월 광주민중항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곡이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로 시작하는 노래는

시각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광주일보가 10일 전남대 재학생 240명에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아는 지 물었더니, 133명(55.4%)은 ‘모른다’고 답했다. 대학생 2명 중 한 명은 모른다는 얘기가 107명은 국가보훈처의 퇴출 계획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노래 제목은 안다’고 답했다.

전남대생 대다수 “모른다”

5·18 인식 부족 심각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총탄에 목숨을 잃은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당시 30세)과 1979년 사랑한 박기순(여·당시 21세)의 영혼결혼식을 담은 노래극 테이프(넛풀이·빛의 결혼식)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5월 광주’를 대표하며 5·18 민중항쟁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노래지만 젊은 대학생들 상당수는 이를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월 정신의 전격화, 세계화는 아직 멀었다는 얘기가. 천편일률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30년 전 항쟁을 겪었던 세대 뿐 아니라 ‘홀러간’ 역사로 인식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효과적으로 각인

하지만 노래 의미에 대해 안다는 대학생은 고작 68명뿐이었다. 그나마 노래 부를 수 있는 학생은 10명에 불과했다.

80년 대학가 집회·시위 현장에서 울려 퍼지고 불리던 노래지만 이날 전남대 법학과의 ‘넛풀이’ 수업을 듣는 72명 중 약에서 노래를 들어봤다는 학생은 4명이 전부였다.

이들에게 5·18도 8·15 광복과 같이 ‘홀러간’ 역사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필요성 있는 ‘5월 알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조한솔(23·신문방송학)씨는 “선배들이 가르쳐줘 알고 있다”면서 “학과 특성상 배웠을 뿐 전에는 몰랐고, 타과 학생들은 대다수가 노래가 있는지도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12일 오전 10시40분께 목포시 용해동 용해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인 넘어져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날 크레인 기사 서모(47)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사고 발생 3시간 만에 지상 40m 높이의 운전석에서 구조됐다.

목포서 크레인 넘어져 2명 사망

해남 교통사고 2명 사상·당진 제철소 가스질식 5명 숨져

지난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대형 사고가 잇따랐다.

12일 오전 10시30분께 목포시 용해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해지구 건설 현장에서 45m 높이의 대형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김모(57)씨와 심모(52)씨 등 2명이 숨지고, 김모(44)씨, 오모(46)씨가 다리 골절 등 부상

을 입었다.

크레인 기사 서모(47)씨는 지상 40m 높이의 조종석에 갇혀 있다 3시간 만에 구조됐으나 허리에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서는 크레인 해체 작업 중 노후화된 벨트가 하중을 견디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업체를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11일 새벽 0시 10분께는 해남군 화면면의 한 선박 제조회사 입구 4차선 도로에서 A(28·몽골)씨가 운전하던 마티즈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돼 A씨와 그 자리에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 주씨의 동승자인 진모(여·42)씨와 그랜저 운전자 김씨 등 2명이 숨지고 주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주씨는 이날 헬중알코올농도 0.09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렬기자·해남=박희석기자 /목포=고규석기자·연합

숨지기도 했다.

이날 새벽 4시께는 광주시 서구 풍암동 생활체육공원 앞 도로에서 주모(52)씨가 몰던 로체 승용차가 김모(여·47)씨가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 주씨의 동승자인 진모(여·42)씨와 그랜저 운전자 김씨 등 2명이 숨지고 주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주씨는 이날 헬중알코올농도 0.09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렬기자·해남=박희석기자 /목포=고규석기자·연합

‘리를 싸이’ 댓글 누리꾼 수사

‘리를 싸이’로 불리는 황민우(8)군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을 처벌해달라며 정식 고소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황 군이 인터넷에서 자신을 비방·모욕한 누리꾼 8명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 군은 고소장에서 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서 회원 8명이 자신 또는 자신의 모친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고 하며 처벌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금고 화면에 문구 따·편의점 도둑 지수

○편의점을 털러던 20대가 금고의 화면에 문구가 뜨자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오인해 고민 끝에 자수.

○광주서부경찰은 10일 새벽 2시 1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A(여·19)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으려 한 혐의(특수강도미수)로 문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문씨는 이날 금고문을 열려고 무작위로 버튼을 누르던 중 화면에 ‘점포 업무관리에 연결 중’이라는 문구가 뜨자 경찰에 신고가 된 것으로 착각해 즉시 도망쳤는데, 붙잡힐까봐 두려워 6시간 만에 스스로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

/박정렬기자 halo@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공시											
사건번호	피 고 인	사건명	사건번호	피 고 인	사건명	사건번호	피 고 인	사건명	사건번호	피 고 인	사건명
2012고단 1679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1709	유한회사 동국상운	도로법위반	2012고단 1822	유한회사 허남용운	도로법위반	2013고단 44	유한회사 전남통운	도로법위반
2012고단 1680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1710	유한회사 영산포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6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45	유한회사 전남통운	도로법위반
2012고단 1681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1711	유한회사 영산포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7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46	유한회사 전남통운	도로법위반
2012고단 1682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1784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8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47	유한회사 전남통운	도로법위반
2012고단 1683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1785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9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48	유한회사 전남통운	도로법위반
2012고단 1684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1786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10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49	유한회사 전남통운	도로법위반
2012고단 1685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1787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11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50	유한회사 전남통운	도로법위반
2012고단 1686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1788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12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51	유한회사 전남통운	도로법위반
2012고단 1687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1789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13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112	한국상공운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688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1790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14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127	주식회사 가보물류	도로법위반
2012고단 1689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1791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15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128	주식회사 가보물류	도로법위반
2012고단 1690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1792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16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129	주식회사 가보물류	도로법위반
2012고단 1691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1793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17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130	주식회사 가보물류	도로법위반
2012고단 1692	주식회사 대원물자	도로법위반	2012고단 1794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22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3고단 233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693	주식회사 대원물자	도로법위반	2012고단 1795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23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3고단 234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694	주식회사 대원물자	도로법위반	2012고단 1796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24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3고단 235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695	주식회사 대원물자	도로법위반	2012고단 1797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18	한라통운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236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696	주식회사 대원물자	도로법위반	2012고단 1798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19	유한회사 대한화물자동차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237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697	주식회사 대원물자	도로법위반	2012고단 1799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20	유한회사 대한화물자동차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238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698	주식회사 대원물자	도로법위반	2012고단 1800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21	유한회사 대한화물자동차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239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699	주식회사 대원물자	도로법위반	2012고단 1801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25	주식회사 진평	도로법위반	2013고단 240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700	주식회사 대원물자	도로법위반	2012고단 1802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26	주식회사 진평	도로법위반	2013고단 241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701	주식회사 대원물자	도로법위반	2012고단 1803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27	주식회사 진평	도로법위반	2013고단 242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702	주식회사 대원물자	도로법위반	2012고단 1804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28	유한회사 수양상운	도로법위반	2013고단 243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703	주식회사 대원물자	도로법위반	2012고단 1805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29	유한회사 동국상운	도로법위반	2013고단 244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704	주식회사 대원물자	도로법위반	2012고단 1806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30	유한회사 동국상운	도로법위반	2013고단 245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705	유한회사 대원물자	도로법위반	2012고단 1807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31	유한회사 대원물자	도로법위반	2013고단 246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706	유한회사 대원물자	도로법위반	2012고단 1808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32	유한회사 대원물자	도로법위반	2013고단 247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707	유한회사 대원물자	도로법위반	2012고단 1809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33	유한회사 대원물자	도로법위반	2013고단 248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708	유한회사 대원물자	도로법위반	2012고단 1810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34	유한회사 대원물자	도로법위반	2013고단 249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811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35	유한회사 대원물자	도로법위반	2013고단 250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812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36	유한회사 대원물자	도로법위반	2013고단 251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813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37	유한회사 대원물자	도로법위반	2013고단 252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814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38	유한회사 대원물자	도로법위반	2013고단 253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815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39	유한회사 대원물자	도로법위반	2013고단 254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816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40	유한회사 대원물자	도로법위반	2013고단 255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817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41	유한회사 대원물자	도로법위반	2013고단 256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818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42	유한회사 대원물자	도로법위반	2013고단 257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819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43	유한회사 대원물자	도로법위반	2013고단 258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820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259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821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				2013고단 260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	도로법위반